

WHO의 健康定義

金 正 根 *

I. 緒 論

現代는 健康의 時代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모두 健康하다는 意味에서가 아니고, 健康에 關心이 集中되어 있다는 意味에서다. 그 계기는 産業社會의 發達로 生活이 운데어져서 사람들에게 健康을 생각할 수 있는 餘裕를 주었고, 保健醫療의 發達로 平均餘命이 늘어나 高齡化社會가 實現되면서 癌이나 腦血管疾患 등 慢性的인 成人病疾患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關心이 集中되면서 부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健康에 對한 一般市民의 認識은 단지 病에 걸리지 않고 長壽하기만 하면 된다는 程度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問題는 一般市民의 이러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醫師나 看護師등 保健·醫療의 專門家까지도 單純히 癌에 걸리지 않으면, 그것이 健康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相當數 있다는데 있다. 원래 醫師나 看護師는 疾病의 治療를 目的으로 養成되는 專門家이기 때문에 健康概念에 對한 教育이 充分치 않아 그러한 좁은 認識에 머물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같이 아직도 疾病, 다시말해서 健康破綻만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充分하다는 健康觀·醫學觀으로 생각하는 保健·醫療의 專門家가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健康이란 概念을 적어도 理論的으로는 生活概念이라야 한다. 人間의 健康現象은 疾病의 層만을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健康과 非健康

이란 것은 全部가 連續된 事象이므로 連續線上에서 認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人間의 健康現象이란 것은 綜合的으로 생각함으로써 本質의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소위 健康하다는 사람은 社會的인 場에서 社會的인 役割을 수행하면서 生活하고 있는 것이므로 生活概念으로서 健康現象을 理解해야만 人類福祉의 向上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健康과 非健康은 連續線上에서 意識하고 體系化 하려는 것이 現代의 健康觀이다. 그러나, 이러한 健康理論은 아직 體系化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WHO에 의한 健康의 定義도 健康을 連續線上의 現象으로서 說明하는 데는 충분치 못하고 非健康을 拒否하는 形式의 理想的인 存在로서의 健康을 論하고 있다.

WHO의 憲章은 世界保健大憲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1946年 WHO (世界保健機構)가 結成되면서 宣言된 것이다. 이 憲章은 WHO의 方向을 明示한 것인데, 憲章의 前文은 9個項目으로 되어 있으며, 첫 項目이 健康의 定義이고 나머지 8個項目은 이에 對한 附隨的인 說明이다. 健康의 定義가 어려우니 만큼 나머지 8個項目을 包含해서 全體的으로 보지 않으면 WHO가 意圖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힘들다.

그런데 어떤 理由에서 인지 첫 項目만이 引用되고 나머지는 無視되는 傾向이 많아 모르는 이가 많은 것 같아서 우선 WHO 憲章의 前文을 紹介하고 그 內容을 나름대로 解釋해 보겠다.

II. WHO 憲章前文

WHO 加盟國은 國際聯合의 憲章에 따라 下記

*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의 原則이 加盟國國民 全員의 幸福, 調和 및 安全保障의 基本이 됨을 宣言한다.

健康이란 단순히 疾病이나 傷害가 없다는 것에 끝이지 않고 身體의으로도, 精神의으로도 그리고 社會의으로도 安寧한 狀態를 말한다. ①

그리고 最高의 健康水準을 누리는 것은 人種, 宗教, 政治的 信念, 經濟的 혹은 社會的 條件에 關係 없이 達成되어야 할 人間의 基本的 權利의 하나이다. ②

여러나라 國民 모두의 健康은 平和와 安全保障을 達成하는 基礎인 동시에 各 個人과 國家間的 철저한 協力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③

健康의 維持增進에 관한 한 나라의 成果는 다 른 모든 나라에도 價値 있는 것이다. ④

健康의 增進 및 疾病의 豫防, 특히 傳染病의 豫防에 대한 國家間的 均衡있는 發展은 모든 國家에 共通의 威脅이 될 수 있다. ⑤

兒童의 健全한 發育은 基本的으로 重要하며 變化하는 環境에 適應하며 生活할 수 있는 能力은 兒童의 發育에 不可缺한 것이다. ⑥

醫學知識, 心理學 및 關聯分野學問의 知識에서 얻을 수 있는 惠澤을 모든 나라의 國民에게 普及하는 것은 健康의 完全한 達成을 위해서 不可缺하다. ⑦

一般人的 正確한 知識을 바탕으로 한 意見이나 積極的인 協力은 한 나라의 健康改善을 위해서 가장 重要한 것이다. ⑧

各國 政府는 그 나라 國民의 健康에 대한 責任을 갖는다. 그 責任은 適切한 保健對策 및 社會政策을 樹立施行 함으로써 다할 수 있다. ⑨

III. 身體的 健康

WHO의 健康定義에서 자주 強調되는 것은 項目의 마지막 部인 「……社會的으로도 完全히 快適한 狀態」란 積極的인 表現部分인 것 같다. 그러나 一般人的 實感으로서 「健康이란 疾病이나 傷害가 없는」 그러한 狀態일 것이며, 專門家에게 있어서도 직접 自己自身の 일이 되고 보면 意外로 그러한 狹義의 健康概念이 별 抵抗 없이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회랍時代에는 健康이란 하나의 理想이었다. 그 當時 회랍어로 健康을 hāl 이라고 表現했는데, 이 hāl 은 英語의 Whole 혹은 Wholeness 를 意味하는 用語로서 「安全함」을 뜻하며, 또 「生活」이라는 意味도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회랍時代의 健康의 意味는 「充分한 生活 可能케 하는 條件이 整備된 狀態」였다. 이 時代의 健康觀은 生活를 滿足하게 營爲할 수 있는 身體條件의 基準으로서 理解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회랍時代에는 哲學이 隆盛했던 때 이므로 精神的 健康에 對해서도 관심이 많으며, 健康을 身體와 精神의 兩面에서 다루려; 傾向도 많았다. 그러한 생각은 크게 普及되지 못했고, 時代의 構造나 社會組織이 變化함에 따라 精神的 安定에 滿足하기 보다는 物質의 충족에 구애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어 健康問題도 一部의 宗教界나 精神科 領域을 除外 하고서는 身體的 側面만을 다루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傾向은 르네상스 以後 더욱 鈍化되어 20世紀 後半까지 계승되었다.

身體가 튼튼하기만 하면 健康한 것이라는 認識의 極端的인 表現으로써 學校保健의 現場에서 부닥치는 것에 體格이나 體力 혹은 身體充實度 (kaup 指數, kohrer 指數 등)로 健康을 評價하려고 하는 發想이 있다. 이것은 어느 것이나 發育과 成長이라는 側面에서 人體를 評價하려고 하는 것인데, 單純히 外形 만을 評價해 보았던들 人體의 環境變化에 對한 適應能力을 알 수 없다는 缺點이 있다. 만일 이러한 外形의 評價로 健康을 論하려면 年齡별로 正常과 異常에 對한 概念規定이 事前에 있어야 할 것이고, 集團平均値에 比해서 統計的으로 正常이 아니라면, 그 非正常이 健康에 있어서 어떠한 意義를 갖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年齡은 外形 뿐 아니고 機能的 側面에서도 重要한 條件이 된다. 身體的 機能은 어느 年齡을 지나면 年齡이 늘어남에 따라 減少한다. 聽力, 視力 할 것 없이 거의가 그 例外가 아니다. 따라서 身體的 機能的인 側面에서의 健康에는 絶對的인 基準이 있는 것이 아니고 年齡에 相應

하는 基準이 있다.

身體的 健康을 이야기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 生殖能力과 遺傳에 관한 側面이 있다. 한 國民의 資質의 向上을 保健政策의 根本理念으로 삼고 있는 國家는 적지 않다. 優生政策은 나치스 獨逸의 純血運動 때문에 한때 誤解도 있었으나, 豫防可能한 先天性疾患을 豫防한다는 意味에서 再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身體的 健康이란 治療를 받아야 할 疾病이 없고 身體의 外形과 機能이 어느 水準보다 나을 때를 뜻한다. 그러나 이 水準이란 어디까지나 統計的인 表現이므로 各 個人에게 어떠한 本質的인 意味가 있는가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IV. 精神的 健康

精神的 健康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身體的 健康以上으로 問題가 많다. 종래 學校教育에서 強調되어 온 精神的 健康은 周圍環境과 잘 調和될 수 있다는 것에 焦點을 맞추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社會의 規範에서 벗어난 行爲는 惡이고, 惡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自己統制를 할 수 있는 能力을 갖는 것이 精神的 健康이라고 一部에서는 보아왔다.

그러나 醫學에서 다루는 精神健康的의 範圍는 人間의 健康과 關聯되는 모든 領域에 걸쳐 있다. 人間對 人間の 關係, 家庭生活, 職場生活, 社會生活에 있어서 특히 感情關係(emotional relation)에 관한 온갖 問題와 行動에 關係되는 모든 問題가 包含된다.

身體的인 疾病의 경우에는 痛症이 있다든지 身體的 機能障害가 오든지 때로는 生命까지 잃게 되는데, 精神的인 病에서는 실제로 痛症이 있다든지 生命을 잃는 것이 아니고 社會에 適應하는 能力이 侵害되는 것이다. 즉 各自가 가지고 있는 機能을 發揮하여 他人과 協調하면서 삶의 보람을 만들어가는 能力을 喪失하게 된다. 精神的 疾病을 그 輕重이나 症狀에서가 아니고 社會에 適應하는 能力程度에서 크게 두가지 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하나는 周圍의 사람들이

나 生活環境에 害를 주는 反社會的인 것이고, 또 하나는 自己 속에 密閉되어 自身에게 害를 끼치는 非社會的인 것이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精神的 非健康이란 反社會的인 問題만이 取扱되어 온 傾向이 있는데, 오히려 남에게 전혀 害를 끼치지 않는 非社會的인 問題가 個人의 機能을 損傷한다는 點에서 보다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예로서 사람은 누구나 받은 일이나 對人關係의 壓力을 받게 되면 心身의 負擔이 커져 焦燥해 시거나 緊張해지고 心理的으로 沈滯되기도 한다. 때로는 作業能力이 低下된다든지 不眠症에 걸리기도 한다. 이것은 輕度の 精神的 非健康狀態인 것이다. 이와 같이 精神的 健康이란 극히 폭넓은 意味를 갖는 것이다. 精神的 健康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自體가 生活의 目標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人生에 있어서의 問題 困難, 葛藤을 解決해 나가기 위한 手段이 되기도 한다.

V. 社會的 健康

WHO의 定義 중에서 특히 여러나라에서 誤解되고 困難을 느끼게 했던 것은 social well-being이란 表現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社會的 安寧 혹은 社會的 福祉로 翻譯되어 社會制度나 社會保障이 잘 갖추어진 것이라고 흔히 解釋되었다. 그러나 社會保障이나 社會制度가 完備된다는 것은 健康하기 위한 條件을 마련하는 段階에서 主目되는 것이지 健康의 實態는 될 수 없다. 더우기 WHO의 健康定義는 個人의 水準에서 意味를 갖는 그러한 健康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래서 保健社會學에서는 社會的 健康은 「社會에서 各자가 맡은 役割을 充分히 다할 수 있고 社會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水準이다.」라고 하고 있다.

家庭에서는 主婦라든가 家長으로서의 役割이 있고 職場에서는 職業人으로서의 機能을 하고 一般社會에서는 그 社會의 一般的인 價値基準이나 規範에 따르는 機能을 遂行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는 社會가 複雜하면 할수록 그 個

人에 기대되는 役割도 複雜해진다. 家庭, 職場, 學校, 地域社會 혹은 特別한 團體에서 한 사람이 동시에 많은 社會關係를 維持해 나가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近代社會인데, 거기에 대해서 큰 無理없이 適應해 나간다는 것, 혹은 그것이 可能한 것을 社會的 健康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的 健康現象이라는 것은 身體的 健康이던 身體的 健康만을 斷切해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身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社會的으로 相互關聯된 連續的 事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HO의 健康定義는 人間的 健康現象을 生活概念으로서 總括的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에 그 本質的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健康이란 매일 意義 있는 生活을 하면서 아침에는 상쾌한 氣分으로 起床할 수 있고 밤에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그러한 狀態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VI. 其他項目에 대해서

原文의 項目(paragraph)에는 番號가 없는데 記述의 便宜上 番號를 各 項目의 末尾에 붙여 놓았다.

우선 第②項을 보면 最高水準의 健康을 享受하는 것은 基本的 人權임을 強調하고 있다.

「基本的 人權으로서의 健康」이란 健康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努力해서 取得하는 것이며, 그러한 行動을 支援하기 위해서 各種의 條件을 國家의 責任下에서 整備되어야 한다는 意味라고 理解하면 될 것이다.

健康을 權利로서 認識한다는 發想은 東洋의 思想의 體系속에는 없었다. 市民革命을 거쳐 近代化로 발돋움 한 西歐의 思想에서 온 것이며, 市民意識을 前提로 한 것이어서 遺憾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基本的 人權으로서의 健康」이란 認識은 아직은 一般國民에게 普及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③의 「諸國民 모두의 健康은……各國人……의 完全한 協力에 依存한다.」라는 部分과 ⑧의 全文은 물론 權利에 對한 義務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一般國民들이 스스로의 健康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의 뒷 部分 「……國家間的 協力에 依存한다.」는 國際協力の 重要性을 力說함과 동시에 世界의 健康達成이 國際平和의 基礎임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健康이란 自己들 國內의 問題로서만 생각해도 될 時代가 있었다. 그러나 資本의 擡頭와 함께 사람의 行動範圍는 急速히 擴大되었다. 거기에 맞추어 固定된 地域內에서만 流行했던 特定の 疾病은 人間行動에 의해서 固定된 領域과는 無關係로 擴散되게 되었다. 傳染病의 侵入은 社會不安의 原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 民族의 絶滅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래서 近世 이후의 諸國은 全力을 다해 傳染病의 侵入을 防止하려고 努力했고(檢疫制度和 國際的 協定이 오늘날 볼 수 있는 WHO 保健規則의 基盤이 되었다. 現在 WHO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協력이나 援助를 地球公認水準에서 다루는 것이 基本原則으로 하고 있다.

④와 ⑤는 ③에서 提示한 國際協力の 特殊한 例나 實際的 思考의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0年代에 始作된 WHO의 small pox eradication program은 人類의 歷史上 처음으로 人間의 힘으로 하나의 疾病을 根絶한 例로서 國際協力の 凱歌라고 할 수 없다. ⑤는 昨年에 있었던 콜레라의 流行에서 우리들에게도 實感을 가져다 주는 項目일 것이다.

1978년에 蘇聯의 Alma-Ata에서 開催된 WHO의 會議에서도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的 保健에 관한 隔差의 是正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WHO만은 다른 UN機關에서와 같이 Ideology 鬭爭의 場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決議를 表明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⑥은 兒童憲章의 基礎라고 생각되는 項目이다. 1959年 國際聯合에서 採擇된 兒童의 權利宣言은 그 前文에서 「이 宣言은 Geneva宣言을 繼承하는 것으로서 兒童은 身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未熟하기 때문에 그 出生의 前後에 있어서 適當한 法律上의 保護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취해야 하고 人類는 兒童에 대해서 最善의 것을 賦與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本文 第4條에서는 具體的으로 健康하게 成長, 發達하기 위해서 醫療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고 하고 있어서 WHO의 役割을 浮刻시키고 있다.

⑦은 前述한 一般國民 스스로가 해야 할 健康守則과 關聯해서 保健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⑧의 「……正確한 知識을 土臺로 한 意見과 協助……」와도 關係된다. 이 「……正確한 知識을 土臺로 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地域社會 保健事業이나 第1次 醫療에서 住民의 參加라든지 地域住民의 醫療需要를 論할 때 示唆하는 바 크다고 생각된다. 最後의 項은 一般的인 表現으로서 國家가 해야 할 任務를 記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I. 結 論

WHO 憲章前文을 全體的으로 살펴 보면 健康이란 概念은 적어도 生活概念으로서 理解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力히 示唆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健康은 基本의 人權의 하나이며, 동시에 一種의 義務이며 各國이 그 나라 國民을 위해서 最大限의 努力을 하는 것은 물론 國際協力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最高水準의 健康이란 이와같이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趣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理想的으로 繁榮하고 있는 國家이든, 開發途上의 國家이든, 世界의 어느 國家에서나 疾病의 制御는 물론 WHO가 主唱하는 健康에 到

達하는 길은 同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社會的·經濟的 要因에 의해 여러 形態의 疾病頻度) 制御方法) 혹은 (醫療知識의 適用까지 左右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各國家는 그 社會의 特別한 要請이나 資源에 인맞는 固有의 醫療와 公衆保健의 體系를 構築해야 할 것이다.

現代의 科學이 提示할 수 있는 것을 最高度로 利用하기 위해서는 先進國에서 하고 있는 醫療制度나 醫學教育 혹은 研究所의 形態를 後進國이 그대로 模倣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것을 그 나라 社會나 文化에 알맞는 形態로 變形시켜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人類의 健康의 增進이란 目的을 充足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WHO의 健康定義가 內包하고 있는 또 다른 意義가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WHO의 monograph series No 34.의 結論部分을 引用하면서 本稿를 끝내기로 한다.

「健康의 改善은 醫學의 進歩에 의한다.」고 하기 고치는 外界의 變化와 生活水準이 높아진 것에 의한 죽이 많다. 우리들이 祖上보다도 健康하다는 것은 疾病에 걸렸을 때 醫療惠澤보다도 오히려 疾病에 걸리지 않는다는 理由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特別한 豫防이나 保健措施때문에 病에 걸리지 않게 된 것이 아니고 옛날 보다 健康한 環境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疾病의 診斷과 疾因의 些少한 點에 대한 先入觀 때문에 醫學은 그동안 健康增進에 가장 有力한 條件이라고 實證되어 온 「外界의 環境을 操作한다」는 것을 無視한다는 危險에 처하고 있다.